

‘학교 밖 청소년들’ 보듬을 서울형 대안학교 도입한다

2022년까지 45개 지정...비인가 대안학교 제도권 끌어들이 활용



서울시내 학교를 중도에 그만 둔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이 8만여명(누적)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들에게 공교육 수준 학습권을 보장하는 ‘서울형 대안학교’를 육성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서울시내 82개 비인가 대안학교 중에서 자격을 갖춘 학교들이 ‘서울형 대안학교’로 선정된다. 올해 10월 15개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모두 45개가 지정된다.

그간 대안학교는 교육당국으로부터 학력이 인정되는 ‘인가형 대안학교(교육청 관할)’와 교육당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교과과정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비인가 대안학교’로 구분됐는데 이 중 비인가 대안학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활용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비인가 대안학교 82개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서류심사, 현장심사, 선정심의를 거쳐 서울형 대안학교를 최종 선정한다.

세부 지정기준은 ▲교육이념의 보편성(종교·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서울 소재 법인·단체가 운영) ▲전문성(대안교육·청소년 지도의 전문성 보유) ▲재정운영의 투명성 등이다.

서울형 대안학교의 교육 품질을 높이고 교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시는 서울문화재단과 협력해 정규교과와 음악·연극·무용을 연계한 ‘찾아가는 인문예술 통학교육’을 실시한다.

대안학교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서울형 대안학교 운영지원단’이 가동된다. 지원단은 교육과정 개발·보완, 교사 연수·교육 등을 제공한다.

시는 2019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도 이날 발표했다.

시는 이 계획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실태파악 연구·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인턴십, 검정고시, 자격취득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사업이 강화된다. 시는 서울시정확재단과 협력해 대안학교에 다니는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교육비를 제공하는 ‘대안교육기금 장학금’을 신설한다.

또 서울시·서울시교육청(학교이탈·경찰청(사건현장)-경찰청·법원(보호관찰처분)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가 강화된다. 연 2회 개최했던 지원체계 회의가 올해부터 분기마다 열린다. 교육청은 학교이탈 시점, 검찰청은 조건부 기소유에 청소년 인계, 경찰청은 학교폭력·아동학대 청소년 관련내용 공유·사례 전파를 각각 담당한다.

학생증이 없다는 이유로 혜택을 배제된 공교육 밖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자치구, 청소년 유관시설이 협업한다. 연내 1만8000명 발급이 목표다.

시는 “서울에서는 매년 1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치열한 입시경쟁 등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떠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공교육 이탈현상이 집중적으로 발생(55%)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학업중단 사유로는 유학·출국(60.2%), 학교이탈 후 이행경로는 학업(50.4%)이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백호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기존 지원을 강화하면서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체계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대안교육 모델을 시도하고자 한다”며 “서울형 대안학교를 통해서 입시경쟁이 아닌 또 다른 선택을 한 아이들에게도 차별 없는 학습평등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백 국장은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에 따른 재정 투명성 검증이 해당 학교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안학교에 계신 분들은 제도권 교육 간섭을 피하기 위해 나온 학생과 종사자들이다. 제도권으로 묶어놓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재정이 투입된다 할지라도 운영상 자율성과 독립성은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스

설 연휴에도 ‘반려견 놀이터’ 개장...이용자 93.8% ‘만족’

내달 2일 어린이대공원·보라매공원 조기개장



서울시는 동절기에 휴장했던 어린이대공원, 보라매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를 조기 개장한다. 설 연휴에도 24시간 개방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어린이대공원, 월드컵공원, 보라매공원 내 반려견놀이터 3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다음달 2일부터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동작구 보라매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 등 2곳을 재개장한다. 삼암동 월

드컵공원 반려견 놀이터는 동절기 시범운영에 이어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반려견 놀이터 3개소는 이날 오전부터 개장하며, 설 연휴기간(2~6일)에도 이용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별도 개·폐장 없이 24시간 개방하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기상특보(한파, 미세먼지, 폭염 등) 발령 시에는 시민과 반

려견의 안전을 위해 운영하지 않는다.

조기개장 배경에는 반려견 놀이터를 찾는 시민이 늘고 이용 만족도도 높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동절기 시범운영한 월드컵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는 이용자가 1일 평균 220명에 달해 시민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반려견 놀이터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이용자 632명 중 93.8%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반려견 놀이터를 이용하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려견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 확보’(75.9%)를 1순위로 꼽았다.

내년 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반려동물 사회적 함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반려견과 주인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시민 수요에 맞춰 반려견 놀이터를 확대 운영하는 만큼 반려동물과 시민이 함께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뉴스스

임시주거 지원통해 노숙인 84% ‘노숙탈출’

862명 대상 최대 6개월 월세 지원 일자리·기초수급·긴급 지원 연계

서울시가 지난해 거리노숙인과 노숙위기계층 862명에게 고시원 등 월세를 지원한 결과 724명(84%)이 노숙을 탈출해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노숙인 임시주거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해 노숙인 862명이 지원을 받았다. ‘노숙인 임시주거지원 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거리노숙인 감소를 위해 월 25만원 가량의 월세를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취업 및 수급신청 등으로 노숙인들의 조기 자립이 가능해져 대부분 약 2~3개월 안에 지원에서 벗어난다.

시는 임시주거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집담 사례관리자 8명도 별도로 배치했다. 이들은 노숙인들의 말소된 주민등록을 복원하도록 도와준다. 생활용품·병원진료 등을 지원해 임시주거에 입주한 노숙인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생활용품 지원은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가능하다. 세면도구, 속옷

양말 등 생활필수품 위주로 지원한다.

시는 임시주거를 제공받은 노숙인의 자립을 위해 공공 및 민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연계, 214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했다. 건강 때문에 취업이 어려운 노숙인 277명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격 취득이나 생계비 등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했다.

아울러 임시주거지원 외에도 한 국도지주택공사(LH)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지원하는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이나 공동생활 가정을 연계했다. 올해 1월 현재 총 1163호의 공공임대주택에 1576명이 입주해 생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정신질환 및 알코올 중독 문제를 갖고 있어 자립하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을 위해 지원주택 100호를 추가 연계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2016년 11월부터 지원주택 시범사업으로 원룸형 지원주택 38호를 운영하고 있다. 정신질환 여성 17명, 알코올중독 남성 19명이 입주해 생활하고 있다. 노숙인 주거지원 상담은 노숙인



위기대응콜(1600-9582)나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777-5217), 브릿지종합지원센터(363-9199) 등의 지원시설을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김병기 서울시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장은 “노숙인 정책에서 주거의 안정은 우선적인 과제”라며 “여성노숙인 등 응급지원이 시급하지만 단계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시설 입소를 거부하는 노숙인에게 우선적으로 주거를 지원해 자립을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스

서울 도심 하천에 나무 10만 그루 심는다

서울시가 올해 중랑천, 안양천, 양재천 등 도심 6개 하천변(18개소)에 1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10만 그루 나무심기는 시의 ‘하천생태복원 및 녹화사업’의 하나로 추진된다. 시는 2006년 ‘하천생태복원 및 녹화사업’을 시작해 지난 14년간(2006~2018년) 중랑천 등 주요 하천변에 축구장 295배 규모(142개소 총 21만5608㎡)의 녹지공간을 조성했다.

올해는 중랑천, 안양천, 양재천, 홍제천, 고덕천, 장지천 등 6개 하천 18개소에 총 22만5740㎡에 녹지공간이 조성된다. 총 10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미세먼지 흡착과 차단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수종이 도입된다.

제방 사면부에는 조팝나무 같은 키 작은 나무와 꽃나무를, 시민들이 많이 찾는 산책로 주변에는 그늘목을 넓은 둔지에는 군락형 숲 등이 조성된다.

뉴스스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